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 2010년 세계 초일류 전자기업으로 우뚝 선다

이윤우 부회장은 1968년에 삼성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삼성전자 및 삼성종합기술원에 근무하면서 2002년 기준 반도체부문 세계시장 점유율 2위 및 TFT-LCD 부문 세계 1위로 성장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삼성반도체의 시작에서부터 현재까지 각종 연구개발을 진두지휘하며 삼성이 세계 기술을 선도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 기술총괄 겸 대외협력담당 부회장,

삼성종합기술원 부회장직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한국엔지니어클럽 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언론인연합회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경제부문)', 한국 능률 협회 '한국의 경영자상' 등을 수상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경영자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편집자 -

### ❖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로 창립 37주년을 맞은 삼성전자는 가전은 물론 반도체와 LCD, 통신 등 전자 산업 전반에서 세계 정상의 기술로 우리 나라 전자산업을 이끌어 왔으며,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삼성전자의 역사를 보면 우리 나라 전자 산업이 보인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부품 국산화와 다양한 제품 개발로 외국에서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던 수준에 머물던 전자산업을 우리 나라의 핵심산업으로 키워내고 수출 산업화하는데 앞장섰다. 우리나라 최초로 흑백 TV의 수출길을 열었으며, 순간수상방식의 절전형 이코노 TV의 선풍적인 인기로 국내 정상에 등극했다. 1978년에는 세계 1위의 흑백 TV 생산 업체로 올라서는 기쁨을 토 하기도 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1983년 64K D램 메모리 반도체 개발 성공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세번째의 메모리 반도체 생

산국가로 등장시켰으며, 1992년부터 현재까지 메모리 분야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종합 가전사로 사업을 영위하던 삼성전자는 1988년 11월 반도체와 정보통신이 통합되면서 가전·정보통신·반도체·컴퓨터의 4대 부문체제로 운영, 각 부문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발전을 모색해 나갔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정상에 올라서는 반도체 신화를 창조하며 일약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상시켰다.

'양 위주의 경영을 버리고 질 위주로 간다'는 1993년 '삼성 신경영' 선언에 따라 삼성전자는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새롭게 변신하는 노력을 지속했다. 그 결과 정보 가전 부문에서 세계적인 명품을 쏟아냈으며, 정보통신 부문에서는 애니콜 신화를 이뤄냈다. 2004년 순이익 100억 달러 클럽에 등극하였으며, 2005년 세계적 브랜드 가치 평가 기관인 '인터브랜드'의 브랜드 순위에



서 20위를 기록함으로써 일본의 대표 업체인 소니(28위)를 능가하는 성적표를 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디지털 시대로 대변되는 21세기에는 '디지털 시대의 선봉자'로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쉽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 주력 분야의 국내·외 기술 동향은?

전자산업은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및 기기가 디지털화되고, 유·무선 및 통신·방송 등이 컨버전스되는 환경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어떤 서비스라도 가능한 유비쿼터스 시대로 진화해가고 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의 통합 및 현실 세계의 디지털화는 이들 인프라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부가 가치를 주는 신규 서비스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며, 소비자는 단순 소비에서 콘텐츠의 생산자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통신은 All-IP를 기반으로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디바이스, 서비스, 네트워크의 형태에 관계없이 제공할 전망이다. 또한 다른 특성의 통신과 방송 서비스 융합으로 신규 서비스들이 창출되고 서비스와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이종 단말기들간의 기능이 더욱 복합적으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멀티미디어 분야에서는 HD, DMB의 상용화에 이어 UDTV, IPTV, 4G MM 등 방송, 통신 전분야에 걸쳐서 서비스의 고화질화, 인터랙티브화가 심화되고 있고, 디스플레이 산업은 경쟁력의 중심이 대형화에서 화질 경쟁으로 이전중이다.

대형 디스플레이 분야는 DTV 시장 확대에 따른 FPD 간 경쟁 격화로 OLED와 같은 새로운 소재, LED 등의 블랙라이트 방식, 프린팅 기법 등의 공정 혁신을 통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지며, 소형 디스플레이 분야는 개인기기의 확대와 접속성의 가속화 추세에 맞춰 e-페이퍼, 플렉

시블 디스플레이 등 이동성을 강화한 형태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맞고 있다.

반도체는 전자기기들이 정보·통신기능뿐만 아니라 게임, TV, 영화 등의 콘텐츠를 융합함으로써 메모리 탑재 용량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반도체업체들은 고집적, 고성능의 메모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는 동작이 빠른 DRAM과 저장용 플래시 메모리 용량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들의 장점을 결합한 PRAM과 같은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 자체적으로 어떤 핵심 기술을 개발했나?

많은 것들이 있었으나 주요 분야의 2005년 대표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징검다리로서 불리는 와이브로와 세계 최초 50나노 16기가 반도체 개발 및 세계 최대 크기의 DTV용 40인치 OLED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와이브로는 3세대 통신에서는 불가능했던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 가상현실, 생체인식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져 기존 이동통신 시장과 비교하면 블루오션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제주에서 열린 '삼성 4G 포럼 2005'와 11월 APEC 회의에서 세계 최초로 핸드오버를 구현한 와이브로 시연에 성공했다. 4G 이동통신 기술의 징검다리로서 불리는 와이브로는 현존하는 이동통신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 '개인 인터넷 방송' 뿐만 아니라 기존 무선 인터넷에서 활성화되지 못했던 네트워크 게임, 화상통화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기가 낸드 플래시 개발의 의미는 Mini HDD 및 노트북형 HDD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올 하반기 양산 예정이며, 16기가 기준으로 2010년까지 누계 140억 달러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최대 크기의 TV용 40인치 능동형(AM) OLED 역시 삼성전자가 LCD 시장에 이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까지 선점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평판디스플레이 시장의 독보적 1위가 될 수 있을 것을 입증한 것이다. 10인치 이하 모바일용, 20인치 이하 모니터용에 이어, 지난해 1월 21인치HD급 OLED를 개발한지 4개월 만에 세계 최초로

40인치 HD급 OLED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특히 4세대 기판으로 개발함으로써 향후 AM OLED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4세대 이상 대형기판에서도 낮은 원가로 높은 품질의 제품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 ▶ 기술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1970년대초에는 전자관련 사업이 모두 고전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한국반도체 인수를 지시한 이진희 회장께서는 전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도체 사업을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재까지 출연했다.

국내외 증권가에서는 "삼성이 반도체 때문에 망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았을 정도로 삼성의 반도체 사업 성공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었으며, 우리 정부의 각 부처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상황이었다.

반도체 관련 기술습득을 위하여 당시 기술 개발 실장이었던 본인은 단원들과 함께 일본의 샤프로부터 기술을 배우고자 연수를 결심하였다. 샤프사는 당시 2류 반도체 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박사급 개발 단원은 연수생 대우를 받았다. 생산 공정도 자유롭게 견학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샤프의 고졸 출신 엔지니어들의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워야 했다. 이 때 기술 없는 회사가 겪어야 하는 아픔과 설움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후 마이크론에서 가져온 MASK와 런 시트, 샤프에서 보고 배운 공정과 설비를 설치하고 가동함에 따라 처음으로 64K DRAM 양품이 나올 수 있었다. 그간의 노고에 축하의 악수를 나눌 때 여러 사람들의 눈에서 볼 수 있었던 열정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 ▶ 앞으로 어떤 비전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삼성전자는 '디지털 컨버전스 혁명을 주도하는 회사'라는 비전을 정하고 2010년 양적 질적 측면에서 전자업계 탑3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 매출을 지난해 매출의 2배 이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 제품을 2010년까지 20개 이상으로 확대

시키고, 고용량 메모리,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TV 등 8대 성장 엔진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품, 기술, 마케팅, 프로세스, 글로벌운영, 조직문화 등 6대 분야의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 기능, 차별화된 성능, 뛰어난 원가경쟁력을 갖는 세계 1위 제품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이다. 2010년에는 삼성전자가 명실상부한 세계 초일류 전자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믿는다.

### ❖ 과학기술계에 진출할 미래 세대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의 발전과 변화는 기술혁신이 주도할 것이며, 이 기술혁신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젊은 공학 인재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기술혁신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다.

지난 1996년초 미국 출장중 한 업체와 미팅중에 그 당시 창사 이래 최대의 매출을 내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똥똥한 고양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직접 그린 살찐 고양이 그림이 임원들의 사무실에 걸렸고, 이는 지금까지도 삼성전자 연구원들은 물론, 경영진들에게 자극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글로벌화 시대에 세계와 함께 호흡을, 그리고 세계와 함께 가치를 낚는 조직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상상력, 도전의욕, 글로벌화를 갖춘 인재 없이는 21세기의 디지털사회에서 싸워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인재 양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젊은 이공계 학생들도 날렵한 고양이가 되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그럴 듯한 먹이와 달콤한 휴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늘 새로운 것을 찾아 도전해야 한다.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창의력이 있는 사람,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사람, 글로벌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정보처리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젊음을 불사르면 자신의 미래가, 더 나아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밝은 미래가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 ㉔

